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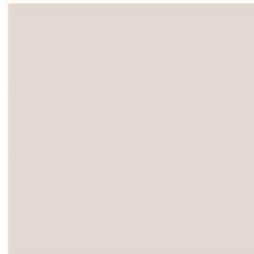
서울척병원 뉴스레터

Chukspine Hospital Newsletter



특집호

2009 서울척병원 페스티벌



CONTENTS

Welcome 2009 서울척병원 페스티벌
환영사 _장상범 대표원장

행사 스케치
사진으로 다시 보는 2009서울척병원페스티벌

스페셜 스토리 in 페스티벌
완쾌무대 01
안봉순님의 "고마운 척병원"

완쾌무대 02
부채춤 - 안봉순, 김금자, 김옥순, 박막례,
유태식, 윤지숙, 이금선, 이점옥, 홍건자

완쾌무대 03
민요메들리 - 김오순 과 민요공연팀

완쾌무대 04
가수 BMK - 정형외과 안준환원장 수술

축하직원무대 척밴드 - 고영식, 신영준, 오치곤, 채규식

포토월 기념사진 - 서울척병원의 3주년을 축하합니다

공모전 - 완쾌 후기 & 사진
후기부문 1위 황대순 - 초록잎에 쓰는 편지
2위 이인자 - 척병원과의 인연
3위 이진수 - 10년을 좌우하는
순간의 선택
사진부문 1위 유남순
2위 송영자
3위 유유복

서울척병원 단신 - 서울척병원의 새로운 소식

서울척병원 · 통권5호
발행일 · 2009년 8월 24일
편집인 · 서울척병원 마케팅실
디자인 · 픽스기획(02-326-0807)



환영사 장상범 (서울척병원 원장)

병원을 찾아주신 환자분들을 평생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일념으로 완쾌환자 축하잔치를 시작한지 올해로 3년이 되었습니다. 성원해주신 덕분에 서울척병원이 그동안 많이 성장하였고 더욱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병원내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참여 고객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올해는 결단을 내려 장충체육관에서 2009 서울척병원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행사에는 유명 연예인의 공연 뿐 아니라 병원 식구로 구성된 척밴드의 연주가 포함되어 있고, 서울척병원에서 치료 받고 완쾌되신 환자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여 준비한 공연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척병원 치료 수기 및 사진 공모전 시상, 경품행사 등을 포함하여 단순히 보는 행사에서 직접 참여를 하는 행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척병원은 지금까지, 비수술 우선, 수술할 경우 최소 절개, 최고의 기술이라는 치료 방침을 고수 하면서, 항상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여 고객에게 이득을 주는 것을 업의 본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심은 향후에도 서울척병원에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내용을 천명하고 다시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번에 열리는 2009 서울척병원 페스티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많이 즐겨주시고, 서울척병원이 더욱더 성장할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다시 보는 행·사·스·케·치

2009 서울척병원 페스티벌



오전 09:00 행사 준비

장충체육관에서 처음해보는 페스티벌 준비에 직원 모두여념이 없었습니다.



오전 12:00 입장

행사시작보다 3시간이나 일찍 입장이 시작되면서 부터 당일의 행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12:30 기념사진 촬영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와의 반가운 인사와 기념 사진 촬영 속에 플레시와 웃음꽃이 활짝 터졌습니다.



오후 1:15 건강강좌 - 어깨질환의 치료법

관절센터를 맡고 있는 이호규 원장의 어깨 질환 치료법에 관한 열강이 펼쳐졌습니다.



오후 2:00 타악 퍼포먼스 연주단 두드락의 오프닝 공연



오후 2:15분 환영인사

2009 서울척병원 페스티벌의 개막을 선언하고 있는 장상범 대표원장

사회자 인기 코미디언 이용식
췌식이 이용식씨가 메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다시 보는

행·사·스·케·치

2009 서울척병원 페스티벌



오후 2:20 축하무대

- 링크

개그우먼으로 활약했던
신세대 쌍둥이 트로트
듀엣 링크가 축하무대를
뜨거운 열창으로
장식했습니다.



오후 2:35 분원설립인사

분당분원의 설립을 발표하고
있는 김동윤 대표원장



오후 2:45 완쾌영상편지 - "고마운 척병원"

서울척병원에서 수술 받고 완쾌한 고마움을
영상 편지로 띄웠습니다.





오후 2:55 완쾌환자공연
- 부채춤 & 민요메들리
서울척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들이 꾸민 흥겨운 놀이마당

오후 3:10 서울척병원 직원축하공연
- 척밴드
오빠밴드? 아니 척밴드!



오후 3:20 축하무대 - BMK
서울척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은 인연으로
무대에 올라와 열창으로 화답한 인기가수 BMK

사진으로 다시 보는

행·사·스·케·치

2009 서울척병원 페스티벌



오후 3:30 축하무대 - 송대관

역시 송대관, 온 관객석이 들썩들썩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45 무대인사 - 의료진 및 전체 직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가득 매운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3:50 시상식 및 행운권 추첨

서울척병원 주최 공모전 수상자 및 행운권에
당첨되신 분들께 다시한번 축하 축하!



오후 4:15 환송 인사

오래 오래 건강하시고,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2009 ! 페스티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쾌해 주시니 더욱 고맙습니다





완쾌 영상편지
안봉순님의
고마운 척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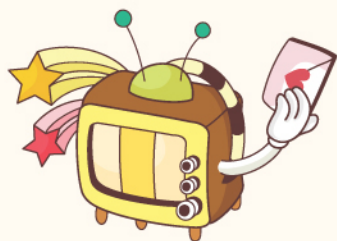
안봉순님의 “고마운 척병원”

올해 예순셋, 안봉순씨는 2년 전 서울척병원에서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으로 일상 생활조차 어려워 귀여운 손녀에게 다정했던 할머니 얼굴에는 웃음도 사라졌다. 다시는 즐겁게 웃을 날이 오지 않을 만큼 심한 통증은 허리에 서 다리까지 번져갔고 걸음을 걸을 때면 조금 걷다가 주저앉아 쉬어야만 했다.

“통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다...”

“그래, 척병원이
마지막이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통증에 여러 병원을 다니며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해보고,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봤지만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은 안봉순님을 더욱 힘들게 했다.

가까이 지켜보던 가족 또한 안봉순씨의 허리병을 빨리 치료하고픈 마음에 인터넷에서 병을 잘 고친다는 병원을 검색하다 서울척병원을 찾게 됐다.

세간에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척추전문병원들을 넘치도록 찾아볼 수 있었고 저마다 내세우는 홍보성 문구만을 믿고 선택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로 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울척병원의 홈페이지를 둘러본 안봉순씨의 따님은 생생한 치료 후기와 의료진의 정성스런 상담을 접한 뒤 척추전문병원으로서의 신뢰감과 진정성을 느끼게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게 됐다.

방문 당시 안봉순씨는 몸과 마음이 지쳐 “그래, 척병원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이였고 과연 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치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듣고 싶었다. 진료실에서 장상범 원장과 마주한 안봉순씨는 “급성 허리디스크 탈출증”과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상태임을 진단 받았고,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았던 안봉순씨에게 장원장은 어떤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환자가 무엇을 궁금해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배려한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놓였다. 당장의 거동이 불편했던 터라 바로 입원을 해 서울척병원에서 수술을하기로 결정했다.

수술은 겁이 났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는 수술을 빠르게 받고 회복해야겠다는 의지가 더 컸다.

안봉순씨가 받은 수술은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절제수술’과 ‘연성고정술’이었다. 탈출된 디스크를 레이저로 제거하고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 척추신경관의 압박을 풀고 불안정성이 있는 허리뼈를 고정해야 요통과 다리통증이 사라지고 재발이 없을거라고 판단했기 때



제가 너무 많이 아파하니까 딸이 병원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문이었다.

현재 안봉순씨는 건강을 회복해 예전과 같이 손녀딸을 안아주거나 외출을 하며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수술 후 만난 안봉순씨는 “통증 없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져 기쁘다”며 “무엇보다 자타공인 실력을 갖춘 원장님께서 권위의식 없이 환자를 배려하시고 그 외에 간호사분들도 성실하고 친절하게 돌봐준 덕”이라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한 “서울척병원을 방문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두려움을 가졌던 수술도 생각보다 훨씬 간편하고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통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다. 심한 고통을 겪으며 막연한 두려움으로 견디기 보다는 전문의를 찾아 빠른 진단과 치료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완쾌무대-부채춤

안봉순.김금자.김옥순.박막례
유태식.윤지숙.이금선.이점옥.홍건자

수술 전에는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무대 위에서
사뿐 사뿐 - 고운 나비같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척병원 박선미
간호과장입니다. 그동안 건강히
지내셨죠? ^^"

서울척병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님들 수술 후에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도 갖고즐거우시라
고 전통무용을 배우는 프로그램인데 참가해
보시겠어요? 3개월동안 부채춤을 배우실거예
요. 수술경과도 좋으시고 가까운 곳에 거주하
시니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시는건 어떠
세요?"

서울척병원의 간호과장은 예전 수술 상담 시 기
역을 더듬어 취미 생활을 원하던 퇴원 환자들
에게 부채춤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좋은 프로그램 이네요. 나 같은 할머니가 잘
따라 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재미 있을거 같아 참가해 보고 싶네~ ㅎㅎㅎ".



서울척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로
구성된 부채춤 공연팀

연습실에 모인 9명의 어머님들, 전통 부채춤을
직접 해보기는 처음인지라 무용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따라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다 스텝이 꼬여 엉덩방아를 찧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다 보면 깔깔깔 웃음바다가 된다.

"예전엔 걷기도 힘들었는데, 집 밖으로 나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춤을 배우고 출수 있다는 건
저에게 찾아온 특별한 행운이예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공연을 하고
싶어요." 땀이 송글송글 맺힌 얼굴에는 한
가족의 "할머니" 이자 "어머니" 이기 이전에
의욕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엿보인다.

날이 갈수록 실력은 부쩍 향상되어 결국,
2009년 서울척병원 페스티벌 행사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였으며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에
3,000여명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완쾌무대-민요메들리 김오순과 민요공연팀



이젠, 마음껏 서서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걷기도 오래 서있기도 힘들었는데 서울척병원에서 수술하고 나 후 마음껏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하시다는 김오순님. 얼마 전 허리 디스크 탈출증으로 입원했을 당시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셨지만 2009 서울척병원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멋진 민요공연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성진 가락으로 민요를 들려주신 김오순님과 민요공연팀께 감사드립니다.

▶ 팀은 어떻게 결성하게 되셨나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민요에 관심이 많아 배우고 싶었는데요. 고향 언니의 제안으로 민요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함께 민요를 공부하던 분들과 마음이 맞아서 같이 민요 공연팀을 만들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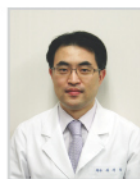
▶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연습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주로 어디서 연습을 하셨나요?

수업을 마치고 따로 시간을 내어 학원에서 연습을 해요. 모여서 연습을 하다 보면 수업시간에 확인 하지 못한 서로의 화음을 맞춰볼 수 있어서 더 좋았죠.

▶ 서울척병원 자랑 한마디만 해주세요

서울척병원은 병원시설도 잘되어 있지만 원장님께서 환자의 말을 귀기울여 잘 들어주시

고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니 너무 좋고 간호사 언니, 간병인이 입원실에서 환자들을 가족같이 돌봐줘서 보호자가 없어도 입원하는 동안 행복한 병원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주치의 김세윤 원장

김오순님은 걸음을 걷기 힘들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신 상태에서 내원 하셨습니다.

MRI검사를 통해 허리디스크탈출증이 진단되었고, 그동안 타병원에서 여러 치료를 해왔지만 호전되지 않고 오랜 통증으로 고생을 해오신 터라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이란 현미경으로 수술 부위를 확대해 안전하게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수술법으로 허리디스크 수술 중 가장 안전하고 재발이 없는 방법입니다.





완쾌무대
가수
BMK



사회) 이용식 ?

BMK씨 아주 많이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BMK씨가 서울척병원과 큰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가수) BMK

네~ 지난 4월에 제가 서울척병원에 입원해서 무릎수술을 받고 지금은
아주 좋아졌어요.

사회) 이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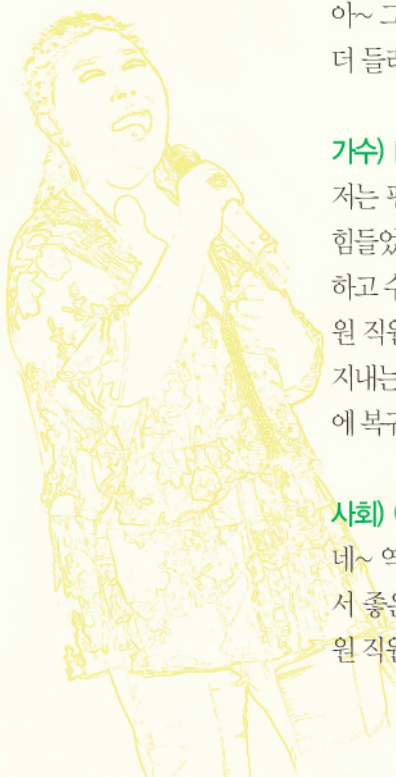
아~ 그러셨군요?! 어떠셨나요, 서울척병원에서 치료받으신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가수) BMK

저는 평소 서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많은데 무릎이 아파 무대에 서는 일이 점점
힘들었었죠. 그런 와중에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받고 서울척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수술 진단을 받은 뒤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 서울척병
원 직원분들은 너무나 상냥하시고 환자분들을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지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저의 주치의이신 안준환 원장님 또한 빨리 무대
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었습니다.

사회) 이용식 ^-^

네~ 역시나 척하면 서울척병원 인가봅니다. BMK씨가 이렇게 건강하게 무대에
서 좋은 노래를 들려주실 수 있도록 좋은 치료와 간호를 제공해 주신 서울척병
원 직원분들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좋은 무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 되어있었고...

주치의 안준환 원장

가수 BMK 씨는 평소 스노보드 등의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편이었고, 왼쪽 무릎 통증을 가끔씩 느껴왔지만 무대에 서는 일이 힘들 정도가 되어서야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본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상에서 왼쪽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 되어있었고 이로 인하여 무릎이 붓고 통증을 유발하였습니다. BMK 씨는 입원을 하여 관절경 수술로 파열된 전방 십자인대를 재건하였고 성공적인 수술과 일련의 재활 과정 후 1주일만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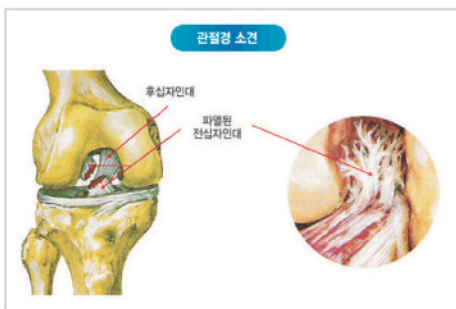
십자인대는 무릎 위, 아래 관절을 이어주는 인대로 회전 압력에 의해 순식간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방향을 급속히 바꾸는 동작을 하거나 몸이 뒤틀리면서 착지하는 경우 많이 일어나므로 운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십자인대 파열 증상

무릎의 통증과 붓기가 관찰됩니다. 계단등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느낌, 또는 무릎을 굽혔다 펴때 무릎속에서 걸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예방법

운동 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발목, 무릎 등의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그냥 지나치기 쉬우므로 증상이 나타났을때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축하 무대

척밴드

서울척병원 직원들이 모여만든 밴드 공연팀



척밴드는 6월 공연을 앞두고 3월에 최소 멤버를 급조하여 결성 됐습니다. 악기를 갖고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돼 대학로 연습실에서 악기를 대여하여 합주를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엔 기타와 키보드의 주법, 드럼 악보의 부재 때문에 연습이 어려웠고, 연



습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시점에 최신 유행가에서 트로트로 연주곡이 변경되는 상황까지 벌어져 공연날까지 완벽하게 마스터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병원의 지원으로 키보드를 구입할 수 있었고, 드럼과 기타를 병원으로 가져와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병원 창고에 모여 점심시간에도 강행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이 시점부터는 호흡이 들어 맞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을 앞둔 6월에는 마이크와 앰프가 갖춰진 곳에서 제대로 맞춰보기 위해 어린이대공원 근처 연습실까지 1시간이 넘는 장거리 이동을 하였고 맹연습 후 늦게 귀가하기 일쑤였습니다.

행사 당일 긴장한 관계로 드럼 연주 일부를 빼먹고

공연하는 옥의 티가 있었지만 관객분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하하하

앞으로 척밴드의 향방은 멤버들의 취향이 심히 달라서 오리무중입니다. ^^;

키보드 오치곤.. 클래식엔 심취한 매니아.

기타 신영준.. 강한 락(ㅋㅋ)에 미련을 못버리고 연습말미에 항상 혼자 락 연주.

보컬 채규식.. 어떤 노래든 다 소화하나 다소 소찬휘 같은 노래를 좋아하는 샤우트 창법소유자.

드럼 고영식.. 재즈에 심취하여 락 발라드에 관심 많았는데 난생 처음 트로트 연주에 무척 스트레스.

이렇게 선호하는 음악 장르가 각자이다 보니 곡 선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울척병원 고객 및 환자분들이나 지역민을 위한 그리고 서울척병원을 위한 자그마한 콘서트를 열고 싶습니다. 더불어 척밴드의 멤버가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베이스 기타, 키보드 증원,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서울척병원 직원들의 가입이 있었음 좋겠네요.

2009 서울척병원 페스티벌에 오신 고객님들에게 자그마한 즐거움을 제공하였다면 더 바랄게 없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기념사진 촬영 포토월



신경외과 홍준기원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원기념행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행사장으로 들어오시던 모습들이 너무도 보기 좋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계속 웃음 잃지 않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고 내년 페스티벌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북구에 있는 고객들에게 잘~해주시고 병을 고쳐 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서울척병원이 최고야 최고! 감사감사합니다”



신경외과 김세윤원장

서울척병원 페스티벌은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서울척병원 개원 기념 행사로 해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수술환우 여러분들을 초청해 왔는데 언제나 부족한 점들이 많음에도 전국 각지에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처럼 오시는 한분 한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겠습니다. 몹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아픈 사람을 많이 치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강해지도록 힘써주시요! 감사합니다”



신경외과 김한성원장

서울척병원 페스티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해지신 모습으로 행사장에 들어오시는 모습들이 너무 반가웠고, 또 제자신도 자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내년 페스티벌에도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올해 못오신 분들도 내년에는 꼭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803호 입원실 동기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서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상당히 기쁩니다. “

기념사진 촬영 포토월



정형외과 안준환원장

모두들 수술 후 완쾌되셔서 환자분들 및 저희가 준비한 공연을 함께 보면서 기뻐하며 교감을 나눌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들 그리고 서울척병원 직원 여러분들 행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 이호규원장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원기념행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술 후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고, 앞으로도 친 가족을 대하듯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환자들에게 봉사하듯 의술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기 위해서 의사선생님들도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명성을 높이시고! 서울척병원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신경외과 백경일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서울척병원 식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항상 척추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상범 대표원장

1년에 한번씩이라도 오셔서 인사하고 서로가 정을 나누는 자리가 정착되는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에는 더 재미있고 알찬 페스티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마음껏 걸어다닐 수 없을 거라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외출이 즐겁습니다. 좋은 행사에서 다시 만나니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윤 대표원장

퇴원 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살아가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을 배려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웃음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서울척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엇으로도 말씀 드릴 수 없었던 차에 행사에 초대해주셔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몇 년을 고통과 아픔으로 고민만 하다가 선생님의 친절함 상담 결과 한번에 수술 결심을 하게 되어 이 시간까지 항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년 행사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공모전-완쾌후기 & 사진 완쾌후기 1위

서울척병원 3주년을 기념하여 수술을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완쾌후기와 완쾌사진 공모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수술 후 완쾌의 기쁨과 건강함,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모두에게 힘과 보람이 되는 뜻 깊은 공모전이었습니다. 그 중 1위부터 3위작을 선정하여 서울척병원페스티벌에서 시상식을 가졌으며, 지면을 빌려 후기와 사진을 소개해드립니다.

초록앞에 쓰는 편지



글쓴이 : 황대순 (2008년 10월 28일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 수술)

모진 추위를 이겨낸 나뭇잎들이 연두색에서 점차 진한 빛깔로 영역을 넓혀가는 늦은 봄 오전이다. 창밖의 느낌이 한바탕 비라도 쏟아낼 듯 찌푸려 있다. 예년과 달리 한 동안 가물어 정상적인 농업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그로 인해 우리의 먹 거리에도 시장 다니기 두려울 만큼 주머니 속을 생각 안할 수 없다. 이럴 때 단비라도 힘차게 내려 주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두 손 모아 본다.

중년여성들이 보통 그렇듯이 허리가 아프거나 약간의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아이를 낳아 요통이 있다고 생각들을 한다. 주변의 지인들, 우리 자매들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왔기에 그 무리에 한사람으로 나도 쉽게 흡수되었다. 특히 겨울철에 더 심해 부엌일을 할 때에는 썩크대에 몸을 기대고, 엎드려 할 수 있는 일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며 이동할 때에는 걷기보다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곤 했다. 때론 침을 맞아 보기도 하고 사우나에 가서 몸을 이완시키는 일로 내 약해진 뼈들을 위로 했다.

작년 큰 아이가 대학을 가고 긴장이 많이 풀렸으나 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머릿속에서는 움직이는 행동이 실제로는 움직일 수 없는 마네킹이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통증. 남편과 아이를 깨워 이른 아침 병

원으로 달려갔다. 그 당시 병원의 선택은 행운이었던 것 같다. 단 한번도 디스크라는 의심을 해 본적이 없어 집 가까이 있는 병원을 가려고 했었다. 예전처럼 근육이 완 처치만 하면 될 거라는 나만의 판단을 미리 했기 때문이었다. 집을 나서는데 지난해 겨울, 노환의 친구어머니가 서울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세상 넓은 줄 모르고 다니신다는 말이 번뜻 뇌리를 스쳤다. 승용차를 돌려 서울척병원으로 향했다. 원무과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이라 벤치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면서 시간을 쪼뼛다.



몸에 좋지 않다는 커피가 왜 그리 먹고 싶은지 자판기 커피 한 잔에 긴장을 늦추면서 말이다. 운이 좋아 입원 다음날 수술 일정이 잡혔는데 그 운이 더해 수술시간도 첫 번째라 조바심도 훨씬 덜 수 있었다. 검사가 왜 그리 많은지.....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이 왜 그리 섭섭하던지.....그렇게 하루가 지루하게 마무리되고 다음 날 아침,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완쾌를 꿈꾸며 수술실에서부터 정신이 들기까지 두 시간은 내 삶의 기억되지 않는 잘린 필름이었다.

수술 후 하루가 지난 아침 엉거주춤 선 채로 먹는 멀건 한 죽이 왜 그리도 맛이 있던지 반찬과 국까지도 모조리 비우며 연일 이어지는 식단의 푸짐함과 성의



있는 음식들이 완쾌를 앞당기는 듯 했다.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러웠다. 지금까지 행동을 자유롭게 했던 하나하나가 행복이었던 걸 실감을 하며 이제부터 내 몸은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지 결심을 차곡차곡 쌓았다. 병원에 있는 일주일동안 친구들이 많이 방문해 주었다. 내가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온 김에 내려가서 진찰이나 받고 가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건강은 자신하는 게 아니라 늘 챙기고 보살펴야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빠른 회복이 되어 재검진을 받았을 때도 성공적인 수술이지만 꾸준히 운동하라는 자상하신 원장님의 말씀이 참 따뜻하고 고맙게 느껴졌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날 무렵 내 추천으로 수술을 받았던 친구의 언니가 입원을 해 있어 병문안을 갔다. 그러고는 한참을 웃었다. 왜냐하면 병명도, 주치의도, 병실도, 침대까지 같은 위치였기 때문이었다. 두 달 전의 내 모습을 기억하며 이 언니도 나처럼 빨리 회복되길 기원했다. 참, 501호에서 간병 해 주셨던 아주머니를 복도에서 만났다. 환자복 벗어버리고 복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허리를 펴고 미스코리아처럼 걸어서 반가움을 웃음으로 토했다. 그 때 5일을 참았던 머리 감겨 주셔서 얼마나 개운했는지. “아주머니 그때 감사 했어요~~” 물론 의료진뿐만 아니라 부서 곳곳에서 제 몫을 다하며 미소 담은 친절을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작년 10월 30일 수술 이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누구보다 건강에 대해 미리 챙기고 가끔 나를 우울하게 했던 통증이 사라진지라 생활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 남편의 사업을 도왔는데 활력이 붙고 용기가 생겨나고 행운도 뒤따랐다. 지난 4월 11일 내 이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시작치고는 좋은 성과가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고 격려 해 주셔서 그 즐거움이 더해가고 있다. 건강한 몸으로 사업의 영역을 넓혀 갈 것이다. 내 나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도 하고 우울했던

시간들이 지금은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처럼 좋다. 꿈만 같은 일이다.

계절의 변화가 그렇듯이 자연은 순리처럼 반복되어 늘 새롭게 느껴진다. 희망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신나는 음악소리에 어깨가 들썩거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삶의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름답게 그리고 내게 투자했던 짧은 시간도 점차 늘려 보련다. 곧 잎이 무성해 지면 나뭇가지가 가려지겠지? 그들도 만들어질 테지..... 겨울엔 나무가 주인공이었지만 이 봄엔 새로 난 이파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걸 초록 잎마다 새기며 자신한다. 화이팅!!

2008년 10월 30일 제 5번요추-제1번천추 디스크제거술(3369번째)환자 수기



주치의 홍준기 원장



황대순님께서서는 평소 간헐적인 허리통증은 있었지만 심하지않아 통증치료만하면서 지내시다가 작년 10월말경 갑자기 심해진 우측엉치통증 및 다리저림증상이 있어 내원하시게 되었고 당시 부측반야 겨우걸을수 있을정도로 증상이 심하였습니다.

MRI검사상 요추5번 천추간의 추간판의 심한 변성에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압박이 심하여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을 다음날 시행하였고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현재는 통증없이 왕성하게 사회생활도 열심히,잘하고 계십니다.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은 피부를 약2cm정도 절개하고 수술현미경을 보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나 비후된 인대,뼈등을 제거하여 신경의 압박을 해소해주는 수술법으로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시행될수있는 허리디스크 수술방법중 하나입니다.



공모전-완쾌후기 & 사진 완쾌후기 2위

척병원과의 인연



글쓴이 : 이인자 (2008년 8월 29일 2x2 척추고정 수술)

오늘도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4월에 각종 향기로운 꽃과 풀내음을 맡으면서 이제 10여일된 아주 예쁜 우리 손녀딸을 안을 수 있다는 감사와 행복한 모습으로 지난날을 생각해 본다. 언제부터인지 허리로 인해 다리가 저려오며 몹시 아프기 시작했지만 중증장애 요양원에 매주 목욕 봉사하며 기독교병원에 도서를 환자들에게 대여하는 봉사를 해오다가 어느 날 병원 바닥에 나도 모르게 주저앉고 말았다.

그 후로 원주에서 유명하다는 병원과 한 달에 수십 만원이 넘는 곳에서(활법) 몇 달을 치료하여 보았지만 결과는 병명도 모르는 채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말았다. 뼈뿔어진 허리와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무엇보다도 안아달라는 예쁜 우리 손자를 못 업어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다. 지난날에 예쁘다는 내 모습이 그리웠다.

처음 서울척병원을 소개 받고 와보니 과연 듣던 대로 친절환 안내양의 접수와 원무과, 너무나도 잘생기신 김한성 원장님의 꼼꼼하신 진료와 검사 결과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는 병명은 척추 협착증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아팠구나. 뼈가 붙었으니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어도, 조금만 걸어도, 조금만 일을 하여도 그래서 아팠구나.”** 하는 뒤늦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동안 병원을 잘못 만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나의 삶은 보이지 않게 늘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온 걸 생각하니 어리석었던 나의 생각과 판단이 은근히 화가 나고 후회스러웠다.

김한성원장님의 손길을 통해 5시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수술이 아주 잘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후로 청결한 환경과 간호사들의 상냥한 치료의 손길,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신 주방 분들,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방사선과 직원 분들, 간병인 니들 모두 잊지 못하는 가운데 수술자리가 아주 잘 회복되어 7개월이 지난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우리 예쁜 손자 손녀를 안을 수 있고, 조심스럽게 다시 독거노인들의 봉사며 미용을 배워 미용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서울척병원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치의 김한성 원장



이인자님께서 3년전부터 시작된 요통과 하지 방사통, 그리고 이로인한 보행장애가 점점 심해지셔서 서울척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MRI검사를 포함한 몇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인자님은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불안정증, 이로인한 신경관 협착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동안 타병원에서 여러 치료를 해왔지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더 심해진 상태였고, 불안정증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은 기본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신경감압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술이라도 본 병원이 자랑하는 METRx-최소절개 척추고정술 (2 X 2 척추고정술)을 받으셨기에 수술후 회복속도가 기존의 고전적인 고정술보다 빨랐고, 고정술로 인한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효과가 입증된 수술을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안전하게 할 수있는 서울척병원만의 멋진 수술법입니다.



공모전 - 완쾌후기 & 사진 완쾌후기 3위



10년을 좌우하는 순간의 선택

글쓴이 : 이진수 (2007년 4월 11일 연성고정술)

본인은 2002년부터 걸을 걸을 때 양쪽다리가 마비증세가 있어 일반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견인치료를 다년간 치료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도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어 걸을 때 마다 양쪽다리가 마비가 와서 걷지도 못하고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면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2분정도 걸었을 때 다리의 마비 때문에 도저히 걸어갈 수 없어서 16년간 종사했던 직장을 출근 할 수 없어서 부득이 휴직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치료에만 전념해야 하겠다는 신념으로 강남에 있는 척추전문병원 전문의를 찾아가서 MRI촬영 기타 검사 결과수술을 권유 받아 상세한 상담한바 요추4번, 5번간 티타늄 금속을 삽입시켜 뼈를 고정하는 시술법이라 하여 일상생활에 있어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는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설명을 듣고보니 도저히 수술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수술 자체를 포기하고 악화될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 밖에 없었고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월경 조선일보에 강북서울척병원의 척추신경에 관한 기사를 읽고 서울척병원 방문 대표원장 장상범 원장을 접한바 상담과정에 매우 편안하고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간호과장(박선미)으로부터 수술방법 설명이 있어 피부 3cm정도 절개 후 신경 압박 부위를 감압하고 특수하게 고안된 연성고정물질을 삽입한다기에 이해가 되었고 영구적으로 허리 운동성이 유지 된다는 설명은 강남의 척추전문병원 수술방법과 비교가 되지 않았으며, 장상범원장님의 의술 우월성을 믿고 안심하고 수술 받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07년도 3월경 입원 수술 완료 후 3일째 복도에서 걷는 운동을 했어도 아무런 통증 및 마비증상이 없었으며 정상 상태였습니다. 10여 일만에 퇴원하고 집에서 복대하고 1개월 후 내원하여 결과가 좋으니 복대를 제거하고 보니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삶의 향기가 가득하여 마비느낌 전혀 없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전제품업체 금성사에서 자사품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표어로써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본인은 서울척병원의 장상범원장님을 잘 선택했으며,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를 느껴가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치의 장상범 원장



건강하신 모습으로 페스티벌에서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이진수님이 받은 수술은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절제수술'과 '연성고정술' 입니다. 인조뼈를 넣어 뼈를 붙이는 수술에 비하여 연성고정술은 수술이 비교적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허리를 안정시켜주되 허리의 움직임을 유지해줌으로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허리 움직임 등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법이 가장 적절한 치료였다고 판단되었으며,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저 또한 매우 기쁩니다.

공모전-완쾌사진



완쾌사진 1위

이름: 유남순

2006년 7월 14일

2x2 척추 고정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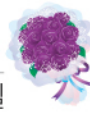


완쾌사진 2위

이름: 송영자

2007년 4월 19일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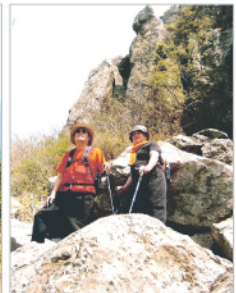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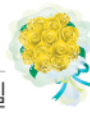


완쾌사진 3위

이름: 유유복

2008년 12월 9일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수술



페스티벌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간호와 박선미과장

페스티벌 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높은 관심과 애정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감동과 감사의 시간이었고 더욱 뜨거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심사와 김희경과장

불편하신데 휠체어를 타고 찾아 오신 분, 지팡이에 의지해서 먼 길 오신 분들과 최선을 다해 모시려고 노력하는 척 병원 직원들이 모습이 아름다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부분 들은 다음에 더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서울척병원페스티벌을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의학과 신영준실장

처음 치르는 큰 행사라 준비한 것 보다는 미숙 했지만 내년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더욱 더 알찬 시간을 마련 할게요.



마케팅실 김유신실장

충분히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셨는지, 장충체육관이 라는 장소가 환자분들께 불편하진 않았을지... 준비 한 무대가 즐거우셨을까 염려되기도 하지만, "평생 고객관리" 라는 모범을 실천해서 직원 모두는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척병원을 믿고 응원해주세요!

병동 임지선 수간호사

병원에서 수술후 그동안 고생했던 통증이 없어졌다고 좋아하시던 환자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복이 아닌 민진 외출복을 입으시고 일상생활의 불편감없이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더욱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담실 김은숙팀장

정신 없이 행사를 치르고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몽클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2006년 오픈 즈음 수술하신 분께서 너무나 뜻 깊은 행사를 잘 치렀다며, 그날 다들 너무 고생 했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척 병원이 남 같지 않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며, 좋은 병원으로 성장 하는 모습에 본인이 너무 흐뭇하다며 직접 말을 전해주고 싶어 이렇듯 연락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울척병원 식구로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상담실 김지현 간호사

황금같은 주말에, 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해주신 우리 환자분들...1년만에 건강해진 모습 다시 뵙게되어 너무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내년엔 더 멋진 행사 준비해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학과 신경회 방사선사

많은 분들이 서울척병원이라는 구심점으로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재미있고 보람된 페스티벌을 잘 마무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더욱 더 멋지고 신명나는 서울척병원 페스티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영상의학과 박주원 방사선사

가실 때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님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저희가 준비한게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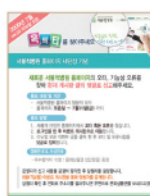


마케팅실 김창한이사

처음 기획을 시작했을 때는 눈 앞이 캄캄했다. 작년의 행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장충체육관에서 의 행사.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려웠다. 그때부터 약 4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낸 페스티벌 행사. 3천명의 예상객, 2시간 남짓의 공연 시간. 이만하면 인기가수의 대형 콘서트와도 맞먹는 대형행사라 할 수 있었다. 과연 우리가 욕 안 먹고 잘 해낼 수 있을까.. 가수 계약도 하고, 무대 세트하며 음향 조명장치도 준비되고, 이제 남은 것은 70~80명에 달하는 우리 직원들의 활약. 솔직히 말하면 반신 반의였다. 나름대로 일찍부터 준비한다고 했는데, 시간은 반드시 부족하다는 것. 페스티벌 행사 당일, 걱정한 것 보다는 아니지만 무대며, 비품이며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직원들의 열정과 빠른 판단력, 그리고 헌신이었다. 입장 게이트에서, 무대 뒤에서, 관중석 계단에서, 2층 복도에서, 1층 객석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임무를 수행했다. 이 정도면 어디 내어놓아도 손색없다는 소리 들을 만하다. 내가 전에 일했던 대기업들보다 절대 뒤쳐지지 않았다. 2009 서울척병원 페스티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공연 전에, 공연 가운데, 공연 후에 흘렸던 땀과 노력, 헌신이 을 해의 페스티벌을 더 없이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확신한다. 이 정도라면 마음먹은 거 뭐든 못할 일이 없지 않겠다. 2010년도 그렇게 해서 기대해 본다.

01 “옥의 티를 찾아라” 이벤트

지난 7월 서울척병원 홈페이지가 5개월간의 리뉴얼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옥의 티”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 중 우수한 의견을 남겨주신 7분을 선정하여 감사의 선물을 증정 했습니다.



02 홍준기원장 IMAST 학회 참석



신경외과 홍준기 원장은 지난 7월15~18일에 걸쳐 오스트리아 비엔나 호프부르크 국회의사당 (Hofburg Congress Center) 에서 열린 IMAST (International Meeting on Advanced Spine Techniques)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IMAST 학회는 전세계 척추 수술 전문의들이 모여 척추 질환의 최신 수술법에 대하여 토론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척추 기형 및 퇴행성 질환에 대한 최신 최소 침습적 수술 기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유익한 학회였다고 홍원장은 전했습니다.



03 신임 의료진 합류



정형외과
이성우 과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척추 전임의



신경외과
정호석 과장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중앙신체검사소 신경외과 과장



신경외과
안경록 과장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국군춘천병원, 국군복제병원 근무



분당척병원 개원 안내

서울척병원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3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그 결실로 제2병원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먼 지방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남부(서울 강남지역 포함)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서울척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당척병원을 통해서 성남, 용인 및 경기도 남부와 지방의 환자들께서 서울까지 오지 않고도 비수술치료를 비롯한 뛰어난 척추치료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의 많은 성원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분당척병원 개요]

- 개원일정: 2009년 12월 개원
- 병상시설: 90병상
- 진료과: 척추신경외과, 척추정형외과
- 검사장비: 최신 MRI, CT, X-ray, 초음파 등
- 병원위치: 아담역 1번 출구 - LG전자빌딩
(아담동 성남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경부고속도로 성남 IC에서 5분 거리)



04 서울척병원 전체 임직원 워크숍

서울척병원 전체 직원은 지난 7월11~12일, 강원도 인제에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외부 컨설턴트 초청하여 “고객이 바라는 서울척병원과 변화 관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내린천에서의 래프팅으로 팀 워크 향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05 공개 건강 강좌 안내

서울척병원에서는 척추디스크, 관절 전문의가 직접 강의하는 공개건강강좌(무료)를 매월 마지막 주 평일 오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30일에는 “척추관협착증” 주제로 한 신경외과 백경일 원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협착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만족도 높은 유익한 강좌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건강 정보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울척병원 관절치료센터

서울척병원 관절치료센터는 무릎관절과 척추디스크의 종합적인 치료 면에서 뛰어난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척추 및 관절치료에 우수한 의료진과 최선의 치료시설을 갖춘 관절치료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진료과목 : 정형외과(무릎, 어깨관절)
- 주요시술 : 인공관절, 관절경
- 특 징 : 무릎관절 전문
척추질환과 관절질환의 종합적 치료
주요특성에 맞게 세분화된 치료
(여성전용 인공관절 시술)
강북지역을 대표하는 최신식 첨단치료시설
(인공관절 관절내시경)